

조선시대 후기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한 고찰*

- 동시대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현 정**

(e-mail: sirayuki@nuch.ac.kr)

目 次

1. 서론
 2. 조선시대 후기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3. 에도(江戸)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4. 결론
-

1. 서론

화장품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종류가 있다. 얼굴을 다듬고 수분을 공급하는 기초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수부터 화장크림, 색조화장에 해당하는 연지, 백분, 눈썹 화장에 사용되는 눈썹먹 등이 대표적인 화장품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필자는 조선시대 후기와 동시대 일본에 해당하는 화장문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선시대 전기는 근검과 절약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화장문화와 화장품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참고로 할 수 있는 화장품에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전기보다는 화장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참고로 할 수 있는 문헌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조선시대 후기와 동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에도시대와 메이지 시대인데 양국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크게 다른 화장문화를 보이고

* 동 연구결과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일본고전문학 및 일본학 전공

있으므로 대단히 흥미로우며 비교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화장문화 중에서 연지나 백분, 눈썹화장 등에 관련된 화장품과 그 문화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연구에서 고찰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기초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수와 화장크림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 그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화장수란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바르면 피부를 훨씬 촉촉하고 곱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현대에는 화장수도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곱고 젊게, 촉촉하게 만들어 주며, 미백효과가 있는 화장수는 피부를 희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크림은 화장수를 사용한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더욱 윤기와 영양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에게 필수적인, 화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임에는 틀림없다.

단지 현대에는 화장의 기본이 되는 화장수나 크림의 영역도 대단히 광범위해서, 화장크림의 영역만 해도 아이크림, 수분크림, 마사지 크림, 영양크림 등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존재하지만, 조선시대 후기나 동시대 일본의 기초 화장품은 현대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의 면으로 보면 당시에 다양한 재료의 화장품이 존재했으나, 종류로 보면 크게 액상형의 화장수와 고체형의 화장크림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므로 본 고찰에서는 이 두 종류의 기초화장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와 동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에도(江戸)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조선시대 후기는 임진왜란(1592-1598년)이후부터 1910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역사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에도시대(1603-1868년)와 메이지시대(1868-1912년)이므로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므로 고찰하면서 두 시대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분야이며, 특히 일본과의 비교연구는 선행연구가 전무하다. 다만 전체적인 한국의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에서 간행된 『한국의 화장문화』¹⁾, 전완길 씨의 『한국화장문화사(韓國化粧文化史)』²⁾ 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며, 일본 쪽으로는 구게 쓰카사(久下司)씨의 『化粧』³⁾, 무라사와 히로토(村沢博人)씨의 『얼굴의 문화지(顔の文化誌)』⁴⁾, 『에도 300년의 여성미-화장과 머리형(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 化粧と髪型)』⁵⁾ 등의 화장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런 문헌들은 화장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1) 코리아나(2006) 『한국의 화장문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2)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3) 久下(2001) 『化粧』, 法政大學出版局

4)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5)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루고 있으며 화장문화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문헌들에서도 화장수와 화장크림에 대한 한일 비교는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후기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에 대한 양상을 고찰한 후, 동시대 일본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에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시대배경과 차이점, 공통점 등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 후기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우선 조선시대 후기에 사용되었던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조선시대 후기에 사용되었던 화장수나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국내외 문헌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극히 일부의 문헌과 화장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오랜 옛날부터 피부에 무엇인가를 발라서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고 윤기있게 하는 풍습은 존재했을 것이다. 『한국민속문화대사전』에는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쑥과 마늘이 피부를 희게 하는 미용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말갈 사람들이 오줌으로 세수를 하여 살갓 미백수단으로 이용했다 한다. 또 한반도의 동북방에 거주했던 읍루 사람들이 거울에 돼지기름을 발라 추위를 이겨내고 동상을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돼지기름이 햇볕 그늘림을 방지하고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데서 온 것으로 본다.”⁶⁾ 라는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오래된 기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한국화장문화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우리나라의 옛 화장품 중 피부용 제품으로는 “조두(세정제), 미안수(화장수), 면약(크림에 해당), 분백분, 색분(色粉, 백합의 붉은 꽃수술의 분말을 채취하여 사용하였음), 물분, 불연지, 입술연지, 미묵(眉墨, 눈썹·속눈썹용), 또 팩(Pack)에 해당하는 미용품(美容品)”⁷⁾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중 얼굴에 가장 먼저 바르는 기초화장품으로 미안수, 즉 화장수가 있었고 화장크림에 해당하는 면약(面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액체타입의 미안수와 고체타입의 화장크림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 이런 화장품들은 대부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각각의 가정에서 직접 제조해서 썼다. 당시는 대가족 제도라서 여자들의 일손이 많은 편이었고, 화장수 역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여자들이 직접 제조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재료는 주로 수세미나 오이, 박 등 각 계절에 구하기 쉬운 자연재료를 사용했는데, 대부분 식물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곡식이나 채소, 약초나 과일 등의 즙을 이용하거나 찌어서 다른 것과 섞어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처럼 당시는 주위에서

6) 김용덕(2004)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창술 '화장(化粧)'편

7)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16

구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재료로 화장수를 만들어 사용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자세한 제조법이나 당시 화장수의 실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헌은 거의 없다. 『동의보감』⁸⁾, 『향약집성방』⁹⁾ 등의 당시 문헌,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문헌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미안수, 즉 화장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민속문화대사전』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미안수(美顔水, 요즘의 로션)를 만들어 사용하고, 꿀 찌꺼기를 퍼발랐다 가 일정 시간 후에 떼어내는 미안법(요즘의 팩)을 하는가 하면, 손쉬운 방법으로 오이 꼭지를 안면에 문지르기도 하였다.”¹⁰⁾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 전승되는 방법으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수세미나 오이, 박 등의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즙이나 수분을 사용한 것이 화장수로 사용되었다. 수세미나 오이 화장수는 현대에도 수제 화장품으로 만들어 사용되거나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수분감이 많아 화장수로서의 기능이 뛰어나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던 재료이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은 의약서이기는 하지만, 신체에 관련되어 식물이나 다양한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당시 화장수나 크림 등으로 사용되었던 재료들과 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 외형편(外形篇)이란 장이 있고, 이 속의 ‘면(面)’이란 장은 전부 얼굴에 관련된 처방들이다. 주로 얼굴에 생기는 부스럼, 얼굴이 붓는 증상, 얼굴에 관련된 각종 병을 다스리는 방법과 피부를 좋게 하는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화장수나 크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얼굴에 수분을 보충하고 기미와 주름살을 없애며 얼굴피부를 더 좋게 하는 것이므로,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와 같은 것들은 현대의 화장수와 화장크림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동의보감』의 기록 중에서 특히 화장수와 화장크림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1> 『동의보감』에 보이는 미안수와 면지(面脂) 관련 재료¹¹⁾

재료	효능 및 사용법
밀타승(密陀僧)	얼굴에 생긴 기미와 주근깨를 치료한다. 곱게 가루를 내어 젖에 개어 밤마다 바른다.
장수(漿水)	좁쌀죽의 옷물. 피부를 희게 하여 살결이 비단결같이 되게 하고, 기미와 사마귀를 없애준다.

8) 1610년(광해군 2) 허준(許浚)이 지은 의서(醫書).

9) 1433년(세종 15)에 간행된 향약에 관한 의약서.

10) 김용덕(2004)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창술 ‘화장(化粧)’편

11) 허준(2007) 『신대역 동의보감』(外形篇: 卷一 面), 법인문화사, pp.600-602

백지(白芷)	구릿대의 뿌리. 기미와 흠집을 없애주고 얼굴을 윤택하게 해 주며, 면지(面脂)를 만들어 늘 써도 괜찮다.
진주(眞珠)	기미와 주근깨를 없애주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한다. 분가루처럼 되게 갈아 젖에 타서 늘 바른다.
울피(栗皮)	밤알 속껍질. 가루내어 꿀에 타서 얼굴에 바르면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고, 노인의 얼굴 주름살도 펴지게 한다.
도화(桃花)	복숭아꽃. 안색을 좋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해 준다.
만청자(蔓菁子)	순무씨. 곱게 가루내어 면지(面脂)에 섞어서 늘 쓰면 주름살이 없어진다.
동과인(冬瓜仁)	동아씨. 얼굴을 광택이 나게 하고 안색을 좋아지게 하며, 검점반점과 주근깨를 없어지게 한다. 크림처럼 만들어 늘 바르면 좋다.
웅지(熊脂)	곰기름.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은 반점을 없애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대저제(大豬蹄)	큰 돼지 족발. 노인의 얼굴이 광택이 돌게 한다. 돼지 발굽 1마리 1분을 먹는 법대로 손질하여 끓여 아교처럼 만들어 잠잘 무렵에 얼굴에 발랐다가 새벽에 장수(漿水, 좁쌀죽의 옷물)로 씻어버리면 얼굴의 피부가 팽팽해진다.

여기서 예로 든 것은 대부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재료들만 간추렸는데, 이 중 밀타승이란 ‘일산화납’을 말하는 광석의 일종이다. 주로 이질이나 종기를 가라앉히는 약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면지(面脂)’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액체타입의 화장수와는 별개로, 현대로 말하면 화장크림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면약(面藥)이라고도 했다. 이는 특히 겨울과 같이 건조한 계절에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얼굴이나 손 등에 이용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이미 “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희게 하기 위한 피부 보호제 겸 미백제인 면약(面藥)과 염모(染毛)가 행해지고 있었”¹²⁾으며 이 사실은 『고려도경』¹³⁾이란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면약호(面藥壺)’에 대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면약호는 정사·부사·도할관·제할관의 거처에서만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구리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둥근 배에 목은 길며 뚜껑의 형태는 조금 뽕족하다. 높이는 5치이고 배의 지름은 3치5푼(分)으로 용량은 1되이다.¹⁴⁾

12) 김용덕(2004)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창술 ‘화장(化粧)’편

13) 고려를 다녀간 송(宋)나라 서경(徐兢 1091-1153)의 견문록. 중국인의 눈에 비친 당시 고려의 양상을 잘 알수 있는 자료이다.

14) 조동원 외 역(2005) 『고려도경』, 황소자리 출판사, p.374

면약호란 면약을 넣는 병을 말하는데, 둥근 배에 목은 긴 형태에다 뚜껑이 있는 병인데, 5치는 약 15센티, 3치 5푼은 약 10.6센티 정도이다. 따라서 높이가 15센티에 둘레가 10.6센티 정도되는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목이 긴 병의 모양으로 봐서 부어서 쓰기 좋은 정도의 액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1되라고 되어 있는데, 1되는 1803.9ml에 해당된다. 즉 1.8리터짜리 우유 한 병 정도의 용량에 해당된다고 보면, 화장품 치고는 대단히 많은 양을 넣어두고 썼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화장품 병은 120 - 220ml 전후의 용량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견주면 그 10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한다. 당시는 화장품을 쉽게 살 수 없었고 한 번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었으므로, 면약이란 것을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여유있게 발랐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향약집성방』에도 ‘顔面을 윤기나면서 희게 하는 처방(面光沢潔白)’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화장수와 크림으로 사용했을 법한 방법들이 여러 개 소개되어 있다. 이 역시 대표적인 것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2> 『향약집성방』에 보이는 미안수와 면지(面脂) 관련 재료¹⁵⁾

이름	재료 또는 효능	사용법
얼굴빛을 윤기나면서 희게 하고 기미와 주름살을 없애는 처방	牡蠣(굴의 살을 말린 것) 3兩, 土瓜根(말린 하눌타리 뿌리) 1兩.	함께 고루 갈아 꿀에 개어 밤마다 얼굴에 바르고 아침에 따뜻한 漿水로 씻는다.
연지법(煉脂法)	얼굴에 바르는 기름(面脂)를 만들려면 煉脂法을 알아야 한다.	음력 12월에 잡은 살찐 豬脂를 매일 물을 갈아주면서 7-8일 동안 담가 두었다가 줄여 맑은 기름을 내어 물속에 넣었다 꺼낸다. 鵝, 熊脂도 다 이 방법대로 낸다.
도화말(桃花末)	얼굴을 깨끗하면서 희게 한다.	복숭아 꽃가루(음력 2월에 따서 그늘에 말린 것)를 烏雞血에 개어 얼굴이나 몸에 바른다.
저제장(豬蹄漿)	얼굴 피부가 조이는 증상과 늙어서 주름이 잡힌 것을 없애고 윤기가 나게 한다.	豬蹄 1具를 보통 해먹을 때처럼 손질하여 물 2升과 멸건 漿水 1升으로 녹이슬지 않은 솥에서 달인 것에 澡豆를 섞어서 밤마다 얼굴에 바르고 아침에는 漿水로 씻는다.

15) 유 효통(1998), 世宗朝命撰『國訳 郷藥集成方』(中), 영림사, pp.1049-1050

여기서 면지를 만드는 데 돼지기름 또는 까마귀나 곰 기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돼지 족발도 얼굴에 바르는 크림의 재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이런 것들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 이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도 피부의 각종 여드름이나 기미 등을 고치고, 피부를 윤기있고 희게 하는 법으로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과 민간요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은 구전이나 직접 사람을 통해 방법이 전수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을 위해 엮은 여성생활백과에 해당하는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얼굴 피부 관리법으로 ‘면지법(面脂法)’이라고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면지법은 겨울에 얼굴피부를 윤기있게 지키는 방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면약을 만드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합총서』에는 그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 새지 않게 두껍게 봉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 뿐더러 윤지고 옥 같아진다. 얼굴과 손이 터 피나거든 돼지발기름에 괴화(傀花)를 섞어 붙이면 낫는다.¹⁶⁾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잘 트게 되는데, 화장을 아무리 잘 해도 베이스가 되는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겨울의 건조하고 추운 기후에서도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피부를 트지 않게 지키며 곱게 만들어 주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언급된 괴화는 회화나무의 꽃봉오리를 말하는 것으로, 한방에서는 지혈약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에 사용되는 약재의 일종이다. 또한 옛날에는 동상치료에도 잘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를 돼지발기름에 섞어서 바르면 지혈에 효과가 있는 괴화가 작용을 해서 낫는다는 말이다. 또한 여기 사용된 달걀은 현대에도 얼굴에 팩을 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돼지기름 등의 기름종류는 겨울에 보호막을 만들어 트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만들어 주는 도화면과 겨울철 피부를 윤기있고 트지 않게 도와주는 면지법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화장의 베이스가 되는 피부건강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방법 말고도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행해졌을 것이지만, 당시 이 『규합총서』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대부가의 아녀자들에게 읽혀졌던 만큼, 이 방법대로 피부를 가꾸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생

16) 병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384

각된다.

또한 『한국화장문화사』에 의하면 ‘윤안향밀(潤顔香蜜)’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는 ‘꿀찌꺼기에 향을 가미한 것으로서 얼굴을 윤기 나게 하는 데 사용한, 영양크림과 흡사한 것’¹⁷⁾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는 참깨나 들깨, 살구씨 등의 기름을 피부에 바르면 희고 피부가 고와진다고 믿어졌으므로, 이런 자연재료인 기름을 이용해서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행해졌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의 이런 기초화장품들은 제조기술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가내수공업 규모로 제조되었다.

백분(白粉)의 경우, 분꽃을 집주변에 심어 거둔 씨앗을 그늘에서 말려 땀돌로 뿜고 체에 쳐서 만들었다. 연지도 홍화를 직접 재배하여 꽃잎을 거두었고, 이를 말려 뿜고 비비고 체에 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상품화된 화장품이라도 제조장소나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고 상표도 부착되지 않았으며, 포장 역시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한 집안에 여러 대(代)의 가족이 거주하는 대가족제도였으며,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에 살기 예사였으므로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분업(分業)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품을 사지 않고 주부가 직접 만들 듯이 화장품 역시 여자가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⁸⁾

이처럼 화장품의 경우 조선시대 후기에 있어서도 근대화가 늦어진 관계로, 다른 산업분야처럼 수공업 수준에 머물렀으며, 외국의 화장품에 비해 시기적으로 많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당시 화장품만을 파는 화장품 가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물었으며, 대가족 제도였던 당시는 사람의 일손은 풍부했으므로 대부분 가내 수공업으로 화장품도 제조되었다. 따라서 화장품에 상표도 없었으며 제조장소나 제조,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표시도 없었다. 화장품은 주로 이렇게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된 것을 방물장수 등이 팔러 다니는 형태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항이 된 이후¹⁹⁾에는 외국의 화장품들이 다양하게 수입되면서, 화장품의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외국에서 들어온 화장품들은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전통식 화장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장이 화려하고 사용법도 간편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한 일본이나 청나라에서 들어왔고, 이후 유럽 등지에서도 들어왔다. 외국에서 들어온 화장품은 종류가 다양했으며, 그런 화장품들은 크게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발달로 이끈다.

17)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16

18) 주17과 상동 p.67

19) 1876년(고종 13)에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외국의 선전문물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때부터를 개화기로 본다.

실제로 이미 19세기에는 서양에서도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비약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화장문화사』에 따르면 “화장품이 대중화되어 대량생산되었고 패션에서는 의복의 간결화와 더불어 명확한 화장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공업의 기계화 물결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과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였고 뷰티 살롱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페인트(grease paint)의 발명과 함께 품질이 향상된 화장품의 보급 등으로 메이크업 용품의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진한 입술, 붉은 볼 화장, 선명한 아이라인 및 인조 속눈썹 등이 등장하였다. 19세기 말 이후에는 크림 루주(rouge)와 색조를 사용한 화장은 더욱 일반화되었다.”²⁰⁾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이라인이나 인조 속눈썹 등은 현대에도 사용되는 화장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서양에서는 19세기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서양에서의 화장품 산업의 발달과 화장법의 대중화가 조선시대의 화장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화기 이후에는 서양이나 중국에서도 화장품이 수입되어서 들어오고, 특히 일본에서 화장수나 크림, 비누 등의 여러 회사의 제품이 수입되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로 대표적인 것은 구라부(クラブ) 화장품, 레토(レート) 화장품 회사 등이었으며, 이들은 광고를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런 광고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일본의 화장품은 국내산에 비해 고가이기는 했지만 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구라부 크림 등은 ‘트지 않게 하는 것은 구라부 크림’이란 문구로 여성들에게 어필했으며, 1918년에는 레토 화장품 회사 제품인 ‘레토 메리(レートメリー)’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는 특이하게 크림과 백분이 세트가 된 제품으로, ‘제품 하나로 1분 만에’라고 선전을 했다. 간편함과 단시간에 화장을 마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서양, 청나라 화장품들의 영향을 받으며 국산 화장품도 날로 발전되고 서양화되어갔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고유의 판매용 화장수와 크림에 대해 살펴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내 수공의 형태로 만들어 졌던 형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개화기가 되면 브랜드를 내걸고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우선 1920년에는 ‘연부액(軟膚液)’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는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라고 하는 상회에서 만든 일종의 미백로션이다. 동아부인상회는 1920년 4월 기혼부인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商社로, 부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이나 화장품, 책 등을 판매했던 곳이다. 당시 연부액은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거칠고 트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나 버짐까지 없애는 일종의 만능화장품으로 광고했다. 또한 분화장 하기 전에 바르면 분화장이 잘 되는 기초화장품으로서의 기능도 강조

20) 임미애(2009) 『화장문화사』, 신정, p.103

했다. 비록 선전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는 얻기 어렵더라도, 집에서 자가 제조한 화장수나 로션보다는 그 효과 면에서 뛰어났던 것은 분명했고, 그로 인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조선부인약방에서 판매한 ‘금강액’은 피부미용 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드름이나 주근깨, 마른 버짐 등에 잘 듣는다고 선전했으며, 미백효과를 강조한 ‘유백금강액’이란 것도 판매했다. 이런 화장품들은 제조한 곳의 이름을 걸고 화장품이 만들어졌고,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는 등 현대적인 개념의 화장품에 가까운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화장품은 시장에서 살 수도 있었고, 또 상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팔기도 했는데, 당시 유행했던 화장품 중에 ‘동동구리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크림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구리무(クリーム)’가 되고, 이를 파는 상인들이 북을 메고 동동 치면서 팔았다고 해서 동동구리무라는 이름이 되었다. 이는 크림화장품의 일종으로 필요한 만큼만 용기에 덜어서 사는 방식이었다. 현대에는 크림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당시에는 이것 하나로 화장수 이외에 크림이나 로션 등의 역할을 다 같이 했었다. 또 이 동동구리무는 이런 식으로 북을 치며 판매하는 상인이나 화장품을 상징해서 이르는 말이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로 방물장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다. 현대로 말하면 방문판매 정도의 개념일 것이다. 방물장수들은 화장품 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잡화도 판매하는,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만물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바깥출입을 엄하게 규제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은 특별한 행사나 장례 등의 경우가 아니면 외출이 쉽지 않았으며 물건을 사러 바깥을 다니는 일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화장품과 화장도구들은 당시 주로 집집마다 다니며 물건을 파는 방물장수를 통해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시대부터 정부가 감독하고 관리했던 시장인 시전(市廛)은 여전히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시전은 지금의 종로(鐘路) 거리를 따라 형성된 상설시장이었으며, 그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시전은 육의전(六矣廛)으로 불렸다. 이 중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는 분진(粉廛)이라는 것이 있었다. 분진은 말 그대로 분을 파는 가게이지만, 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화장에 관련된 도구나 화장품, 장신구 등을 전반적으로 판매했다. 이 분진에서 전국에 화장품을 공급했고, 공급된 화장품은 방물장수 등을 통해서 다시 재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화장품 전문가게는 그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결국 대부분 방물장수나 동동구리무 상인 등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존재했던 시전에 대한 표현이 문헌에도 가끔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춘풍전』에는 평양에 가는 것을 말리는 착한 아내의 머리채를 이 춘풍이 “선전시전(瑣廛市廛) 비단 감듯, 상전시전(床廛市廛) 연줄 감듯”²¹⁾ 쥐고 구박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선전시전이란 장거리에서 비단을 파는 가게를 말하고, 상전시전이란 잡화가게를 말한다. 소

21) 張德順 監수(1999) 『배비장전/옹고집전/이춘풍전/육단춘전/운영전/가루지기타령』, 明文堂, p.84

설에서 이와 같은 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런 가게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시 일반 여성들의 경우 이런 시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방물장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으나, 화장품이나 잡화 등을 구입하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로서 시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조선시대 후기의 문헌에는 이와 같은 시전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전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에도(江戸)시대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화장수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를 화장품의 일종으로 보는 사상은 희박하며, 그 기록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풍습 속에서 고대에 사용되었던 화장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음력 9월 9일에 중양(重陽)의 명절이 있는데, 이날 ‘국화에 씌우는 솜(菊の着せ綿)’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헤이안(平安)시대(794-1185)부터 시작된 풍습으로, 음력 9월 8일날 국화꽃을 풀솜으로 싸서 그 국화의 향을 솜으로 옮긴 후, 그 다음 날 아침(9월 9일)에 이슬로 젖은 그 풀솜을 얼굴에 대거나 몸을 씻어내면, 피부가 젊어지고 건강해져서 장수한다고 믿어졌다.

이는 꽃과 자연의 이슬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자연산 화장수인데, 이것을 화장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화는 특히 고대 중국에서 신선이 사는 세계에 피는 신성한 꽃으로 여겨져서, 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장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다. 이와 같은 국화에 대한 믿음이 일본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국화에 씌우는 솜’과 같은 풍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헤이안 시대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졌던 풍습인 모양으로, 당시 여러 문헌들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예를 보면 9월 9일에 국화에 솜을 씌우는 풍습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겐지는) 9월이 되어서 9일의 중양의 날에 솜을 씌운 국화를 보시고 노래를 읊으셨다. 예전에는 함께 자고 일어나서 장수를 빌었던 이 국화의 아침이슬도, 올해 가을에는 나 혼자 소매에 떨어지는 눈물의 이슬만 남았구려.²²⁾

22)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4』 小学館 p.544

중양의 풍습은 이처럼 단순한 화장수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주로 젊고 건강해져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졌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대표적인 여류수필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서도 “9월 9일은 새벽 무렵부터 비가 약간 와서, 국화 위에 이슬도 많이 생겨서 국화 위를 덮고 있던 숨도 대단히 젖었다. 그 때문에 국화향도 더욱 강하게 났다.”²³⁾고 하여 이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젖은 국화의 숨에서 얻은 액체 등이 화장수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외에는 구체적으로 화장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세시대에도 화장품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문헌이 극도로 적어서 더욱 정보를 얻기 어렵다.

화장사의 연구로 유명한 구게 쓰카사(久下司)씨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화장수의 재료로써 ‘오이, 토마토, 딸기, 수세미, 쥐참외’²⁴⁾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피부의 윤기와 트러블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가 되면서 화장수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 확실해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화장수도 생겨났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화장수로는 ‘하나노쓰유(花の露)’라고 하는 것과 ‘에도노미즈(江戸の水)’의 두 종류를 들 수가 있다. 그 이외에 현대에도 여전히 화장수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는 수세미의 화장수인 ‘헤치마스이(へちま水)’ 등이 있었다.

하나노쓰유란 ‘꽃의 이슬’이라는 뜻으로 에도시대 전기 무렵부터 메이지시대까지 판매되었던 장수 화장품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처럼 고대부터 대부분의 화장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했었는데, 이 하나노쓰유와 같은 화장품이 대중적으로 널리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목욕탕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미인화와 함께 화장품의 그림을 그려 넣어 선전을 해서 포스터와 같이 붙여서, 사람들에게 널리 인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에도시대의 미용잡지나 미용백과 등에도 이런 화장품들의 언급과 소개, 만드는 법 등이 실려 있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도시 풍속 화장전(都風俗化粧伝)』²⁵⁾에 보면 하나노쓰유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하나노쓰유의 효과는 “얼굴에 바르면 광택이 나고, 향기도 좋으며 피부 결을 곱게 해 준다. 또 얼굴에 난 종기도 낮게 해 준다.”²⁶⁾라고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찔레나무의 꽃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꽃을 따서 ‘란비키(蘭引)’라고 하는 용기를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화장수를 만드는 방법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23)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43

24) 久下司(2001) 『化粧』, 法政大學出版局, pp.229-230

25) 1813년 사야마 한시치마루(佐山半七丸)가 저술한 미용백과. 미인이 되기 위한 얼굴 손질법, 화장법, 몸가짐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책으로 다이쇼(大正)시대까지 베스트셀러로 당시 수많은 여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26)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243

하나노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란비키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란비키는 일본에는 에도시대 초기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도기로 만들어졌다. 향아리같이 생긴 맨 아래의 용기에 주전자와 같이 생긴 용기가 그 위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며, 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란비키는 “술, 향료, 약 등을 증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인 아랑빅이 변한 말이다. 에도시대에 소개되어, 소주의 제조 등에 사용되었고 또 하나노쓰유의 제조에도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란비키 용기의 제일 아래에 물을 넣어 끓이고, 그 위의 용기에는 꽃을 넣는다. 증기로 꽃이 찌지면, 그 증기가 다시 그 위의 용기에 모아져서 주전자와 같이 돌출된 부분에서 하나노쓰유가 흘러나오는 형태로 되어”²⁷⁾ 있다.

또 하나 유명했던 화장수로는 에도노미즈란 것이 있다. 이는 ‘에도의 물’이란 뜻으로 『우키요부로(浮世風呂)』 등의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이자 우키요에 화가인 시키테 산바(式亭三馬, 1776~1822)가 1811년부터 판매한 화장수로도 유명하다. 시키테 산바는 작가는 직업 이외에도 생약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만든 화장수인 에도노미즈를 예쁜 유리병에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선전 문구를 이 화장수를 분화장을 하기 전에 바르면 ‘분이 잘 발리게 하는 약’으로 선전함으로써, 화장수를 스스로 만들어 쓰던 사람들까지 더욱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게 만들었다. 또한 이 에도노미즈를 자기가 쓴 책들 속에서 그림을 삽입하거나 문구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홍보효과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에도시대, 특히 후기로 갈수록 더욱 대중들을 겨냥한 출판문화가 대단히 발달하게 되는 데 기인한다. 사람들이 가볍게 즐겨 읽을 수 있는 오락적인 소설들이 많이 출판되고, 그런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작가들은 글만 써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약이나 화장품, 담배관련 용구 등을 파는 가게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들은 본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가 있었고, 인기 작가의 경우에는 자기의 작품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 약이나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익도 크게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1789년부터 1800년 무렵부터 에도시대의 유명한 소설 작가와 우키요에의 화가 등 유명인들이 화장품이나 치아연마제(齒磨劑-현대의 치약같은 것)에 대한 선전문, 광고지 등을 적는 것이 유행했던 것이다. 유명한 작가 등이 많이 팔리는 자기의 책이나 광고지 등에 이런 화장품 등의 선전을 실으면, 당시처럼 TV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대단한 선전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런 선전을 했던 작가들에는 시키테 산바를 비롯해, 『난소사토미핫켄덴(南総里見八犬伝)』 등으로 유명한 작가 교쿠테 바킨(滝沢馬琴), 『도카이도추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

27) 村田孝子(2007) 『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化粧と髪型』, 青幻舎, p.14

栗毛)』로 유명한 작가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작가이자 화가로도 유명한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内)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시키테 산바는 자기가 쓴 책 속에서 ‘화장수’와 나이든 여성들의 화장을 위한 ‘노부인 화장품’과 ‘머리나는 약’, ‘치아 연마제’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효능에 대해 선전을 하고 제조, 판매했었다. 이들은 작가나 또는 우키요에 화가라는 본업 이외에도 약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

앞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이나 수세미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스스로 만드는 화장수도 많이 존재했다. 수세미로 만드는 화장수는 에도시대 당시 ‘헤치마스이(へちまし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江戸の化粧』에서는 수세미 화장수인 헤치마스이에 대해 “서민들도 스스로 채취할 수 있는 간편한 화장수였다. 이 화장수에는 펙틴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의 기름을 제거하고 땀띠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살갗이 튼 곳이나 화상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²⁸⁾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헤치마스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세미 줄기를 뿌리부분에서 30-40센티미터 정도 되는 곳에서 자른 후, 뿌리 쪽 줄기의 자른 단면을 병 속에 넣는다.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병 입구와 줄기 사이를 면으로 막아 둔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2리터 정도 모인다. 이 헤치마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는 8월 15일이 최적이다.”²⁹⁾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도시 풍속 화장전』에는 동과(冬瓜)를 이용한 미백 화장수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동과를 잘게 잘라 질 좋은 술 한 되에 넣는다. 불을 약하게 해서 동과를 졸여 고약처럼 만들어서, 천에 싸서 짠 후 짜끼기는 버린다. 밤에 잘 때 얼굴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씻어내면 된다. 14일이 지나면, 얼굴이 희어진다.”³⁰⁾

동과는 박과의 덩굴성 식물로, 속과 껍질, 씨가 모두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동과는 이뇨와 제독 작용이 있고 당뇨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동의보감』의 동아씨³¹⁾에 관한 내용에도 얼굴을 광택이 나게 하고 안색을 좋아지게 하는 재료로 소개되어 있다.³²⁾ 이와 같이 미백과 미용의 효능을 가진 동과가 일본에서도 역시 미백화장수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 여성들의 피부에 좋다고 하여 이용되었던 특이한 화장품으로 피꼬리의 똥이 있다. 똥을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것은 아니고, 피꼬리의 똥을 쌀겨 등에 섞어서 정제한 것인데, 이를 ‘우구이스누카(鶯糠)’라고 불렀다. 이는 주로 주머니 등에 넣어서 얼굴을 닦는 식으로 사용했다. 이는 피부를 곱게 하고 하얗게 해준다고 해서 당시 인기가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도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정사마귀·흙집·여드름·주근깨를 없

28) 渡辺信一郎(2002) 『江戸の化粧』, 平凡社新書, p.44

29) 주 28과 상동

30)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66

31) 동아의 원말이 동과로, 동과씨와 같은 말이다.

32) 허준(2007) 『신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p.1937

앤다. 저지(猪脂)에 개어 바른다.”³³⁾라고 하여 가마우지의 똥이 얼굴에 바르는 재료로 소개되어 있다. 이는 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서민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서 더 인기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서민들 중에는 피꼬리 똥을 목적으로 피꼬리를 기르기도 했었다.

화장수가 아닌 크림 개념에 가까운 화장품을 살펴보면, 주름을 방지하여 피부를 젊게 만드는 방법으로 돼지의 발굽도 사용되었다. 『도시 풍속 화장전』에 의하면, “돼지 발굽을 4개 깨끗이 씻어서 쌀뜨물로 졸여 걸쭉해진 것을 잘 때 얼굴에 바르고 다음날 이것을 쌀뜨물로 씻어낸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대로 행하면 15일 안에 얼굴의 주름이 펴지고 피부 결이 고와지며, 광택이 나서 소녀와 같이 젊어질 것이다.”³⁴⁾라고 자세히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고찰한 『향약집성방』의 저제장(猪蹄漿)이나 『동의보감』의 대저제(大猪蹄)와 같이 돼지 족발을 사용한 면지 만드는 법과 대단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헌들의 기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젊게 하고 팽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돼지 발굽을 삶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젤라틴 성분이다. 이는 먹었을 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를 젊게 하고 윤기를 준다. 그러나 이처럼 얼굴에 발랐을 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돼지 발굽에 숨겨진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에도 말기가 되면 “젤레나무등의 꽃잎을 란비키로 증류한 향기수를 넣는 등, 향기를 화장수에 더하게”³⁵⁾ 되었다. 즉 화장수의 기능에 향기라는 것을 더해 그 가치를 높이게 되는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화장수의 용도나 형태에도 이제까지 없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베르츠 박사가 창제한 알칼리성 화장수(베르츠수)를 바탕으로 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는 화장수가 화장을 지우거나 백분을 녹이는 물로도 사용되었다. 근대적 개념의 화장수인 ‘미안수’가 만들어진 것은 메이지시대 중반무렵 부터로, 이는 카세인, 붕사(硼砂), 글리세린, 알코올, 안식향 퐁크(安息香チンキ)등이 원료였다.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시대까지 ‘유백(乳白)화장수’가 유행했다. 이는 트라칸트고무(ドラカントゴム), 붕산(硼酸), 글리세린, 아연화(亜鉛華) 등이 주원료로, 제조에 십몇일이 걸렸다.³⁶⁾

이처럼 근대적인 개념의 화장수가 만들어 진 것이 메이지 시대 중반 무렵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화장수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성을 띠게 된다. 우선 1878년에 헤이안

33) 주32와 상동, p.602

34)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48

35) 日本風俗史学会編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化粧水’항목.

36) 주 35과 상동.

시대의 유명한 여류가인이자 절세미인으로 이름난 오노노 고마치(小野小町)란 여자의 이름을 딴 고마치스이(小町水)가 등장했다. 그 이후에 ‘니하치스이(二八水)’나 ‘로얄수(ローヤル水)’ 등의 이름을 가진 화장수들이 등장해서 팔리게 된다.

또한 이 시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없었던 흰 유액으로 된 화장수가 등장하게 되었던 점이다. 1906년에 레토(レト)화장품 회사가 처음으로 서양의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우유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서 판매했던 ‘유백화장수 레토(乳白化粧水レト)’란 것이 이런 류의 화장품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화장수는 전부 물처럼 투명한 것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나서 유액같은 화장수가 발전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다.

메이지시대에는 서구의 영향으로 화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화장품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크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림은 화장수만 바르는 것보다 피부가 촉촉해져서 화장의 기초가 되며, 마사지에 사용되기도 했다. 액체 타입인 화장수와는 다른 고체타입의 크림의 형태로 막연하게 존재했던 것이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확실히 화장수와는 다른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대의 화장품을 생각하면 크림이라고 해도, 마사지 크림, 수분 크림, 영양 크림, 화장을 지우기 위한 크림, 바디 크림 등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며, 예를 들어 수분 크림만 해도 엄청난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에도 크림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크림을 영양 크림으로도 마사지 크림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보인 이후에 화장수에 비해서는 훨씬 촉촉한 사용감에 크림의 인기는 크게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1909년에는 레토 화장품 회사가 건성크림의 일종인 배니싱 크림(バニシング-クリーム)을 판매했고, 1910년에는 경쟁회사인 구라부 화장품 회사가 바디 크림인 ‘구라부 바디 크림(クラブ美身クリーム)’를 발매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크림들이 화장품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후 더욱 널리 사용됨으로써 기초화장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게 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 후기와 동시대 일본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문 중에서도 항목별로 양국을 비교하면서 고찰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양국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고, 시대 배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곁하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로부터 사용된 화장품의 종류가 많았지만, 기본이 되는 화장수, 크림, 색조화장에 해당하는 연지, 백분, 눈썹 화장에 사용되는 눈썹먹 등이

기본적인 화장품으로 존재했다는 점이 비슷하고, 화장수나 화장크림이 피부를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초화장품으로서 존재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이 중 화장수와 화장 크림 등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각각의 가정에서 직접 제조해서 썼다는 점, 재료가 주로 수세미 등 각 계절에 구하기 쉬운 자연재료를 사용했다는 점, 곡식이나 채소, 약초나 과일 등의 즙을 이용하거나 짙어서 다른 것과 섞어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부분 식물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비슷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는 피꼬리의 똥, 조선시대에는 가마우지의 똥처럼 특이한 재료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점, 조선시대나 일본에서 다 돼지 족발을 사용해서 화장크림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점 등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대 양국의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이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조와 유통이라는 점에서 양국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양국의 시대배경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도 큰 영향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에도시대에는 이제까지 귀족들이 중심이 되었던 화장문화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화장문화가 발달하면서, 화장품과 화장도구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에 따라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중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생겨나고, 그에 대한 광고나 선전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종류도 이제까지 사용되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해지게 된다.

즉, 조선시대 후기의 경우 개화기 한참 이후까지 화장수나 화장크림 등을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로 만들어 썼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화장품의 대중화란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에 이미 ‘하나노쓰유’와 ‘에도노미즈’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수가 널리 유통되고 활발히 선전되어 팔리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경우는 그 시기가 개화기가 한참 지난 이후가 된다. 즉 만들어 쓰는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이미 제조된 상품을 사서 쓰는 형태가 일반적이 되는 시점에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유통과 매매의 면에서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화장수나 화장크림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로는 방물장수였고, 극히 드물게 시전에서 구입을 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에도시대가 되면서 상인문화가 발달하고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대중화가 빨리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도 방물장수보다는 상점에서 구입하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화장품의 광고의 면으로 보면, 에도시대 후기로 갈수록 대중들을 겨냥한 출판문화가 대단히 발달하게 되고, 이런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의 작품 등에 약이나 화장품을 활발히 광고함으로써 더욱 화장품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 편으로 조선시대에는 1920년대에 들어서 동아부인상회의 연부액, 조선부인약방의 금강액 등이 자체적인 브랜드 명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화장수나 화장크림의 대중화가 늦어진 만큼, 조선시대의 경우 광고면에 있어서도 일

본보다는 늦은 시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개항 이후 외국화장품의 영향으로 포장이 화려하고 사용법도 간편한 화장품들이 점차 사용되게 되고, 백분이나 크림 등의 화장품에서 비누같은 세정제, 향수 등까지 크게 인기를 끌며 브랜드를 내걸고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가내수공업 단계에서 벗어나 빠른 발달단계를 거쳐, 현재는 기술면이나 디자인 등의 면에서도 뛰어난 화장품들이 지속적인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본적인 틀이나 사용되었던 재료 등은 비슷하지만, 일본이 좀 더 서양화와 화장품의 대중화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시작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장품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 화장수와 화장크림이 더욱 다양해지고 서양화된 시점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이는 결국 화장품의 대중화, 유통과 광고, 매매 등의 전반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적인 화장문화의 흐름과 시기에도 큰 차이점을 만들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 김지희(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p.75
 김춘득(2000)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78
 김희숙(2000) 『(한국과서양의)化粧文化史 : 화장문화와 화장기법』, 청구문화사, p.170
 빙허각 이씨 원저, 鄭良婉 옮김(2006) 『閨閣叢書』, 보진재, p.255
 유 효통(1998), 世宗朝命撰 『国訳 郷藥集成方』(上-下), 영림사, p.100
 임미애(2009) 『화장문화사』, 신정, p.149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246
 코리아나(2006) 『한국의 화장문화』,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167
 코리아나(2010) 『한국의 화장도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p.178
 허준(2007) 『신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p.398
 陶智子(2005) 『江戸美人の化粧術』, 講談社, p.97
 石上堅(1983) 『日本民俗大辞典』, 桜楓社, p.199
 佐山半七丸(1982) 『都風俗化粧伝』, 平凡社, p.210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 2』 小学館, p.544
 1999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 p.43
 日本風俗史学会(1999) 『日本風俗史事典』, 弘文堂, p.145

- 原田淑人(1987) 『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 刀水書房, p.190
久下司(2001) 『化粧』, 法政大学出版局, p.156
平松隆円(2009) 『化粧にみる日本文化—だれのためによそおうのか?』, 水曜社, p.59
樋口清之(1982) 『化粧の文化史』, 国際商業出版, p.155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86) 『モダン化粧史 — 粧いの80年』, ポーラ文化研究所, p.79
ポーラ文化研究所編(1990) 『日本の化粧 -道具と心模様-』, ポーラ文化研究所, p.134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婦人たしなみ草 -江戸時代の化粧道具-』, ポーラ文化研究所, p.120
ポーラ文化研究所編(2002) 『近代の女性美 -ハイカラモダン・化粧・髪型-』, ポーラ文化研究所, p.86
村澤博人(2010) 『미인의 탄생 : 얼굴로 읽는 일본, 일본문화』, 너머북, p.48
村沢博人(2007) 『顔の文化誌』, 講談社, p.177
村田孝子(2007) 『江戸三〇〇年の女性美 — 化粧と髪型』, 青幻舎, p.35
渡辺信一郎(2002) 『江戸の化粧』, 平凡社新書, p.132

要 旨

Though there were many kinds of cosmetics used from ancient times in Korea and Japan, those cosmetic skins and creams existed as basic cosmetics to make much fairer skin was similar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re were some similarities in the aspects of cosmetic skins and creams between two countries as follows: fundamentally each home directly made and used cosmetic skins and creams with raw materials which could be easily obtained in the neighborhood; each home used raw materials which could be easily obtained each season; each home used juices of grain, vegetables, herbs, fruits and others, and used those things which were pounded and mixed with other materials; each home mostly used plant materials to make cosmetic skins and creams.

However, when the aspects of cosmetic skins and creams of contemporary Korea and Japan are generally examined, there were wid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points of manufacture, circulation and advertisement. Although the uses of cosmetic skins and creams and the raw materials used then were similar between them, Japan got ahead of Korea in the aspects of western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cosmetics. And Japanese cosmetic skins and creams influenced by the West were more diversified and westernized from the traditional cosmetics than Korea.

キーワード: cosmetic skins, cosmetic creams, basic cosmetics,
Korea Japan comparison

투 고: 2014. 2. 28
1차 심사: 2014. 3. 15
2차 심사: 2014. 4. 5